



### 광주광산경찰, 다문화 청소년 경찰학교 체험

광주 광산경찰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16일 서구 광천동 청소년 경찰학교에서 고려인마을지역아동센터 청소년 15명과 방과 후 교사, 통역인(러시아어), 광산·서부 학교전담경찰관 등 총 30여명과 함께 '다문화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다문화 청소년 경찰학교'는 출생·이주 배경이 다른 고려인 등 다문화 청소년의 범죄위험 노출을 예방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적응 해소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광산서가 올해부터 추진한 특색사업이다. 이날은 입교식을 시작으로 △범죄예방교육 △경찰장비 직업체험 △지문 채취 과학수사 △사격체험 등이 진행됐다. 강일원 광산경찰서장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 위험 및 피해로부터 벗어나 사회 적응력을 키우고 한국 사회에서 조화롭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 건보공단 지역본부-광주광역치매센터 협약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와 안전한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및 치매관리사업 강화를 위해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

17일 건보공단 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윤정옥 본부장,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 김병재 센터장 등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 안전한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및 치매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연계 협력,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치매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공유했으며, 특히 건보공단은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고위험·취약세대를 위한 자원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 본부장은 "본 협약으로 치매환자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치매예방, 치매안심 1등 광주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 초록우산 광주본부 홍보단 22기 환아지원 활동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광주지역 대학생으로 구성된 나눔 전문 봉사단인 '초록우산 홍보단 22기'를 선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초록우산 홍보단 22기는 서류와 면접의 선발과정을 거쳐 아동복지 및 나눔캠페인, 마케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총 50명의 단원이 선발됐다.

이들은 8월까지 도움이 필요한 광주 지역 환아를 돕기 위한 '하루캠페인'을 실시하며 아픈 아동의 가정에 희망을 선물할 예정이다.

나인희 초록우산 홍보단 22기 회장(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환아가 겪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교육을 통해 우리 주변에 많은 아픈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22기 홍보단원들과 힘을 합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초록우산 홍보단은 지난 2013년 1기 활동을 시작으로 2024년 22기까지 누적 954명을 배출한 지역사회 대표 대학생 대외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선한 영향력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정성아 기자**



### 순천경찰, 5개 사회단체와 치안 업무협약

순천경찰(서장 국승인)은 지난 16일 순천시 5개 주요사회단체와 치안활동 참여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사회단체에 순천경찰의 치안활동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고 참여치안의 완성도를 높여 안전하고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평등자문회의의 순천시협의회, 해병대 순천마린클럽,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남동부지구, 국제로타리 3610지구 3·4지역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 단체 회원은 4300여명이다.

이에 앞서 순천경찰서는 순천 JC청년회(회원수 70명)와 참여치안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순천경찰서장은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치안활동에 관심을 갖고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 동강대-국제건설 '인재 육성' 산학협력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광주·전남지역 중견건설업체인 국제건설(회장 김명기)과 산학협력을 맺고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발전기금을 기탁 받는 등 상생을 약속했다. (사진)

동강대학교는 지난 15일 오전 본관 1층 장원홀에서 국제건설(주)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및 대학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 후 동강대 이민숙 총장은 (주)국제건설 김명기 회장으로 부터 대학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받았다.

김명기 회장은 "수 십 년 전부터 산학 협력에 관심이 많았다. 모교인 동강대(건축과 졸업)와 산업계 현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상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민숙 총장은 "동강대 건축과는 48년 역사 동안 수많은 인재를 키워낸 우수한 학과다"며 "인재 육성과 학교 발전을 위해 동강대와 끈끈한 협력을 약속한 국제건설(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 광주관광공사-순창발효관광재단 업무협약

광주시관광공사는 지난 16일 순창발효관광재단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

17일 광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관광정책 및 사업관련 정보 상호 공유 △상호기관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공동 콘텐츠 개발 및 시행 △상호 협력사업 및 모범사례에 대해 적극 홍보 및 협력할 계획이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광주는 서남권 관광허브도시로서 인근 시·군과 함께 상생하고 협업해야 한다"면서, "순창군은 광주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관광도시 광주의 비전을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 목포문화도시센터-목포대문화연구원 협약

목포문화도시센터는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과 업무협약식을 맺고 향후 전문인력 양성과 양 기관의 행사 및 활동에 상호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은 국내외의 섬과 해양 문화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학문분야 융합연구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인문, 생태, 역사, 생활 등 지역문화 연구를 위한 자문 협조와 전문인력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목포 고유 문화자원의 가치 발굴과 문화인재양성 등 목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목포문화도시센터 이방수 센터장은 "지역문화 교류와 발전에 협력하고 섬 인문학, 생태문화, 도서관문화, 로컬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 악뮤 '데뷔 10주년' 서울 콘서트 예매 시작

그룹 '악뮤(AKMU·사진)'의 서울 콘서트 예매가 시작된다.

지난 15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악뮤는 오는 6월15~16일 양일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케이 스포돔(KSPO DOME·옛 체조경기장)에서 '2024 악뮤 10주년 콘서트 [10VE]'를 개최한다. 콘서트 선예매는 지난 16일 오후 8시 인터파크 티켓에서 열렸다.

이번 선예매는 '악카데미 멤버십(AKKADEMY MEMBERSHIP)' 가입자를 대상으로 17일까지 진행된다. 위버스에서 사전 신청을 완료한 '악카데미(AKKADEMY·공식 팬덤명)'에 한해 구매 가능하다. 멤버십 미가입자를 위한 일반 예매는 오는 19일 오후 8시부터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AKMU의 목



소리가 담긴 초대 영상이 공식 SNS에 공개돼 기대를 높였다. 두 사람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고 초대장을 건네며 공연 주요 정보들을 직접 소개했다.

한편 2014년 데뷔한 악뮤는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이했다. 이들은 최근 공식 팬덤명 '악카데미(AKKADEMY)'를 발표했다. 또 일본 최대 음악 페스티벌인 '서머소닉 2024'에 출격할 예정이다. **뉴시스**

### 키오라, 대중성도 잡았다... 음원 차트·앨범 판매량 ↑

걸그룹 '키소브라이프(KISS OF LIFE·사진)'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지난 15일 소속사 S2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3일 첫 싱글 앨범 '미다스 터치(Midas Touch)'로 컴백한 키소브라이프는 이날 오전 멜론 톱 100 차트에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주 최초로 톱 100 진입에 성공했던 '미다스 터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차트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밖에도 벅스 차트 10위, 애플뮤직 데일리차트 3위를 기록했고 스포티파이 천만 스트리밍을 돌파하는 등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앨범 판매량도 훌쩍 늘었다. 한터차트에 따르면 '미다스 터치'의 초동 판매량은 약 7만 장이다. 이전 앨범보다 대폭 상승한 수치이자 자체 최고 기록이다. **뉴시스**



또한 이날 '미다스 터치'의 뮤직비디오도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키소브라이프는 이 곡으로 다섯 번째 1000만 뷰를 기록했다.

한편 키소브라이프의 첫 번째 싱글 앨범에는 2000년대 메인 스트림을 떠오르게 하는 거칠지만 직관적인 사운드의 타이틀곡 '미다스 터치'와 서정적인 멜로디와 성숙한 보컬이 조화를 이루는 알앤비 수록곡 '나싱(Nothing)'이 수록됐다. 이들은 2000년대 Y2K 감성을 완벽하게 해석, 대중들의 호응을 이끌고 있다. **뉴시스**